

#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디자인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Pinakothek der Moderne for Forming the Museum Complex

박성호\* / Park, Sung-Ho

박무호\*\* / Park, Moo-Ho

임채진\*\*\* / Lim, Che-Zinn

## Abstract

The Pinakothek der Moderne(Munich, 1996-2002, Stephan Braunfels) in planned to form the Museum Complex, with the 4th Pinakothek harmonized with Alte Pinakothek(Munich, 1826-36, L.von.Klenze) and The Neue Pinakothek(Munich, 1981, Alexander von Bran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sign method of Pinakothek der Moderne for forming the Musuem Complex

키워드 : 뮤지엄 콤플렉스, 모데르네 피나코텍, 공간구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세기말 쉰켈(Schinkel)이 베를린에 위치한 알테스 뮤지엄(Altes Museum, berlin, 1823-30)을 고유한 목적을 가진 전형적인 박물관<sup>1)</sup>형태로 설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박물관 건축은 지난 세기 동안 도시 조직 및 문화지평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도시와 박물관 연계의 성공으로 이들의 균형은 변해왔다. 현대에 접어들어서 전후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기능상실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으며, 그 속에서 박물관은 도시 발전을 위한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뮤지엄서퍼(Museumserfer)와 슈트가르트<sup>2)</sup>의 뮤지엄스메일레(Museumsmelle), 비엔나의 뮤지엄카르티에(Museumquartier)에 이르기까지 뮤지엄 콤플렉스(Museum Complex)는 지역부흥, 경제활성, 도시회복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리차드 마이어의 게티센터(Getty Center, Los Angeles, 1984-97))와 같은 박물관 단지는 자율적인 이상도시로 여겨지고 있다.<sup>2)</sup> 즉 박물관의 건립은 박물관 하나의 개발이 아닌 박물관의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주변 도시조직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의 존재라 할 수 있다.

독일 뮌헨에 위치한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경우는 건축가의 개성의 표현보다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 그리고 향후 증축 건립될 4번째 피나코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데르네 피나코텍(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1996-2002, Stephan Braunfels)을 중심으로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 Munich, 1826-36, L.von.Klenze)과 노이에 피나코텍(The Neue Pinakothek, Munich, 1981, Alexander von Branca)이 위치한 대지내에서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존박물관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접근 및 공간구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sup>1)</sup>

## 2.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뮤지엄 콤플렉스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 정치의 중심도시인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관련 뮤지엄들을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집중 배치시킴으로써 세계의 문화중심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최첨단을 걸어온 파리가 그랜드 프로젝트 10(Grand Project 10)을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1)본 논문에서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Museum)과 예술작품을 위주로 하는 미술관(Art Museum)을 모두 포괄한다.

2)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1989년까지 완성함으로써 또다시 세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활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현재 프랑크푸르트, 바젤,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베를린 등 많은 도시들이 뮤지엄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와 같은 도시는 네르비온강변 재개발 계획에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1991-97, Frank O. Gehry)을 건립하였고, 런던의 경우도 침체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력 발전소를 박물관(Tate Modern Gallery, 1994-2000, Herzog & de Meuron)으로 재생하는 것을 계기로 그 일대가 런던의 대표적인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도시활성화는 물론 경제활성화 그리고 미술계와 정부에 각성을 준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뉴욕의 맨하탄 동측 부두에 대규모 구겐하임 박물관(2005완공예정, Frank O. Gehry)이 건립될 계획이어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sup>3)</sup>

### 3. 뮤지엄 콤플렉스로서의 위치 및 배경

#### 3.1. 대지의 주변성

박물관의 장소성(context)은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나 역사적인 도심에서 적절한 대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20세기 초반부터 뮌헨에는 3번째 피나코텍(모데르네 피나코텍)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의 포화상태의 유물들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전시되지 못하고 보존을 위한 수장시설조차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데르네 피나코텍에 대한 계획이 실현이 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지어진 대지는 부지 선정시 고려되었던 타 대지들보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 인접해 있고, 또한 북쪽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신도시(Maxvorstadt)와 구도시(Altstadt)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신도시의 그리드체계의 가로와 구도시의 불규칙한 원형 가로사이를 이어주어 뮌헨내에서는 유일하게 뮤지엄 콤플렉스로서 발전 전망이 주어진 대지이다.

#### 3.2. 현상설계안의 지침

모데르네 피나코텍과 증축될 4번째 피나코텍의 계획을 위해 1992년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였다. 현상설계 지침중 주요한 2가지는 다음과 같다.

3)서상우, 도시 문화풍경으로서의 뮤지엄 콤플렉스,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8호, 2003

첫번째는 약60만점의 유물을 전시, 수장하게 될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러개의 건물군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전시공간과 수장공간의 계획 및 연결, 유물의 관리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하나의 매스로 된 알테 피나코텍과 크게 두개의 매스 조합으로 된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두번째는 북서쪽으로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면하고 남서쪽으로 뮌헨의 중심부와 접하고 있는 대지내에서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전면부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sup>4)</sup> 기존의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은 뮌헨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그곳의 지역성(context)만을 다뤘지만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신도시와 구도시를 이어주는 지역에 위치하여, 이는 단순히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과정을 위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상설계공모안에서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의 계획안을 보면 알테 피나코텍의 축선과 맞추어 대지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원형매스를 제안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알테 피나코텍의 지역적 위치와 축을 고려하여 새로운 박물관으로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시도와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된 형태를 주어 건축가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스위스 건축가인 헤르조그와 데뮤런(Herzog & de Meuron)은 하나의 큰 유리 매스내부에 각각의 박물관시설들이 구성되어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는 그들의 작업의 화두인 단순한 구조의 중첩, 개념적이며 미니멀적인 형태와 일치한다. 한 건축 작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까다로운 프로그램상의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안은 크게 네가지 장르<sup>5)</sup>의 전시물이 전시될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프로그램상의 기능적인면<sup>6)</sup>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당선작인 슈테판 브라운펠츠(Stephan Braunfels)의 안은 작게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면한 북서쪽과 뮌헨의 중심부를 향한 남동쪽 두면으로 부터 박물관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크게는 신도시의 정확한 격자가로와 구도시의 불규칙한 원형가로로 시각적축으로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나코텍 단지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를 위한 결절점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고 평·단면상의 배치와 프로그램에 충실한 절제된 계획을 통해 기능적으로 요구된 사항을 만족시켰다.<sup>7)</sup>

4)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5)그레픽, 건축, 디자인, 모던아트

6)모던아트 전시품들을 가진 스타츠갤러리 모데르네 쿤스트(The Staatsgalerie moderne kunst)는 높고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닫혀진 갤러리를 필요로 하고, 건축전시품들을 가진 아키텍추어뮤지움(architektuemuseum)은 측면의 채광을, 디자인전시품들을 가진 노이에 잠룽(The neue sammlung)은 인공조명을, 그래픽전시품들을 가진 그레픽체 잠룽(The graphische sammlung)는 북쪽의 빛이 들어오는 전시공간과 연구복원 공간을 필요로 한다.

7)자세한 사항은 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4.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디자인 개념

### 4.1.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개념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알테 피나코텍의 축에 더 강한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새로운 축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상에서 요구된 기능 중 그 일부<sup>8)</sup>를 지하에 계획함으로써 알테 피나코텍의 높이와의 연계를 맞추었다. 이것은 알테 피나코텍이 뮤지엄 콤플렉스의 중심으로써 영원히 지배적인 위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또 향후 증축될 피나코텍을 포함한 피나코텍 건물군들이 도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쉬테판 브라운펠츠는 의식적으로 연결이라는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기능을 강조하는 양쪽 측면을 모두 개방되게 계획하였다. 주 진입부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이 위치한 북서쪽을 향한 큰 로지아(loggia)이지만 뮌헨의 도시 중심부에서 온 관람객들은 동남쪽의 로지아를 따라서 박물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그것은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뮤지엄 콤플렉스 전체의 입구 역할을 하고 더불어 새로운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이 대지가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4.2. 기존뮤지엄과의 조화

#### (1) 공간의 개방성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10m의 격자 그리드를 이용하여 모듈(module)에 맞춰진 계획이 이루어졌다. 대지의 주변성<sup>9)</sup>에 따라 설정된 사선의 축과 로툰다의 결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예로 강의실은 도시동남축의 진입부 사다리꼴의 주 계단아래에 만들어졌다. 동시에 원형홀의 하부의 반은 레벨차를 이용한 전시실로 계획하고, 나머지 반은 물품보관소로 계획되었다. 이와함께 전시실의 하부에는 보석 전시관을 계획하여 남겨진 공간이나 쓸모없는 공간의 발생을 최대한 줄였다.

진입부 구성에 있어서 쉬테판 브라운펠츠는 고전건축의 중심에서 현대 박물관의 입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알테 피나코텍의 직선 공간과 계획적으로 대조되게 하였고,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큐빅의 형태와는 다르게 건물 내부의 구성은 개방성과 투과성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카페테리아가 위치한 유리 매스의 투과성은 도심에 향한 개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이 있는 북서쪽 출입구의 기둥들을 통한 조망은 알테스 뮤지엄을 향한 조망과 흡사하다. 이는 또한 클렌제(L. Von Klenze)의 초기 성당박물관이 주는 조망과도 유사하다.

8) 노이에 잠룽(The neue sammlung)의 디자인 전시품 전시공간 9) 3장 3.1 대지의 주변성 참조

#### (2) 공간의 유사성

공간구성은 건물중앙의 로툰다를 중심으로 룸투룸(Room To Room)형식<sup>10)</sup>의 전시공간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복도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 단위 전시공간<sup>11)</sup>은 작가별, 학파별로 분류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모든 전시실은 10m의 고정된 폭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 단조로움을 피하였고, 전시실의 모서리 부분은 기둥주위에 세잎 모양의 전시공간의 배치로 연속적인 그림들의 배열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시실 사이의 벽들은 단순구획의 요소로써 특별히 출입구를 위한 상인방(上引枋)을 생략하여 전시실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임을 강조하고, 관람자들에게는 닫힌 공간 내에서 막혀 있다는 느낌을 덜어준다.

최상층의 전시공간은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 마찬가지로 회화의 전시를 위해 자연채광을 이용하고 있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에서 주목할 점은 천창 아래의 격자를 이용해 전시공간은 천창의 자연채광을 일정한 조도의 빛으로 여과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한 전시물의 손상을 막고 관람자의 관람에 적합한 전시환경을 구성한다. 이로 인해 백색의 벽과 천창을 통해 조명되는 중성적인 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는 현대적인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써 벽에 채색이 되어있는 고전적인 박물관 유형인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시대적인 형태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위전시공간들로 분화되어 나열되어 있는 룸투룸의 전시실 형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전시실들 사이의 개구부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비롯하여 도시의 전망을 하나의 전시물로써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위환경의 내부유입을 통하여 현대 박물관 내에서 관람자가 과거에 대한 것과 현재의 것에 대한 교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건물과 기존의 건물 그리고 외부환경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4.3. 로툰다의 기능

#### (1) 중심성 강조

공간구성은 불레(Boulevard)의 박물관계획에서 시작된 중앙의 로툰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중심성을 수용구조<sup>12)</sup>로 된 박물관의 한 형태로서 중심공간은 순수

10) 전시내용의 연결을 의도하거나 동선유도의 목적으로 전시실과 전시실이 직접 연결된 통과형의 형식으로 일렬로 전시실이 배치될 경우 감상할 전시의 양을 예측할 수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유럽의 고전건축을 이용한 미술관에 많은 형식이다. -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1997. 12, p.107

11) 단위 전시공간이란 박물관 전시시설 중 바닥, 벽, 천정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공간이다.

12)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한 전시관람 보다는 보다 집합적인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서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따라서 중심공간 주변에는 다수의 관람객이 모여드는 수직동선인 계단이나 복도가 둘러싸고 있어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반면 전시공간은 이러한 중심공간에서 분리되어 비교적 전시 관람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즉 전시관람이라는 박물관의 기본요구와 함께 사람들이 모이고 조우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박물관 내부에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중심공간의 상징적 의미야말로 쥘리안 자신의 로툰다를 '성소'라고 호칭한 배경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볼레의 박물관에서부터 내려오던 중심성의 전통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2) 형태적 특성

중앙의 지름 30m이상의 로툰다는 로마의 판테온(pantheon)과 같은 넓이다. 또한 이것은 볼레(Boulee)의 1783년 이상적 박물관을 위한 디자인에서 나타난 실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면처리가 된 드럼모양의 로툰다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알테 피나코텍은 중전형식의 일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중앙부의 홀은 존재하지만 대공간으로 분류하긴 힘들다. 노이에 피나코텍에서는 중정의 형태로 중앙의 대공간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삽입되었지만 이는 형태적인 특성일 뿐 기능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모데르네 피나코텍에서의 로툰다는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의 로툰다를 이용하고 있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두개의 출입구에서 중앙의 로툰다에 들어서면 동서로 뻗어 있는 긴 복도를 인지하게 된다. 이는 기능적으로 전시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점으로 관람객에게 전시공간 전체를 파악하게 함과 동시에 동선분배의 중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로툰다와 연결된 긴 복도는 여러 분류로 나누어진 전시영역을 연결해 줌으로써 관람객이 관람 목적에 따라 선택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말해 층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진 전시관을 로툰다와 사선계단을 이용하여 한번에 이어주는 개방된 단면계획으로, 정위판단을 위한 역할과 그 중심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대지의 주변성과 공간구성의 방법을 토대로 뮤지엄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한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설계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접한 알테 피나코텍, 노이테 피나코텍 그리고 고

전적 유형의 박물관과 비교를 통해 공간구성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경우 공간구성에 있어서 건축가는 자신의 개성의 표현보다는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과의 공간적, 시각적 연계를 이루고, 본래의 프로그램에 충실함으로써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계획방향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고전적인 박물관 단지내에 현대 박물관의 건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접근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모데르네 피나코텍이 비록 현대 박물관의 지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동시대 건물을 다룬 것이 아니라, 동시대 분야에 역사적 지식을 불러 일으켰고, 현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했다. 이는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현대 박물관 건축이 문화적 복합체로써 도시의 연속성과 공공성의 확대를 추구하고 기존 건물과의 연계 및 장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직 모데르네 피나코텍은 기존 건물들 속에서 뮤지엄 콤플렉스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가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다.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2단계 계획이 완성되고, 더불어 새로 증축될 4번째 피나코텍이 완성됨으로 해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도시구조의 맥락을 이어주는 하나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축이 형성되어 인근 지역은 물론 주변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임채진 외, MED.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1997. 12
2. 임채진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
3.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4. 서상우, 복합박물관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박물관학회 논문집 통권 제5호, 2001
5. 서상우, 도시 문화풍경으로서의 뮤지엄 콤플렉스, 한국박물관학회 논문집 통권 제8호, 2003
6. Stephan Braunfels, Pinakothek der Moderne, Birkhäuser, 2002. 12
7. Prestel, Pinakothek der Moderne, Prestel, 2004. 3
8. Baumstark, Reinhold, Alte Pinakothek, Munich, Antique Collectors Club, 2001. 5
9. Lenz, Christian, The Neue Pinakothek, Munich, Antique Collectors Club, 2003. 11
10. Levin, M.D, The Modern Museum, Dvir Publishing house, Jerusalem, 1983

13) 임채진 외,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